

식민지 조선 여성의 해외여행과 글쓰기: 나혜석의 「구미만유기(歐美漫遊記)」를 사례로

한지은*

Overseas Travelling and Writing as a Woman in Colonial Chosŏn: A Case Study of *Western Travel Writing* by Na Hye-Seok

Ji-Eun Han*

요약 : 이 글에서는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시공간적 맥락에서 한국 여성 최초인 나혜석의 구미여행기에 대한 문화지리적 접근을 시도한다. 당대의 공간적 실천의 산물이자 물질적 결과로서 나혜석의 구미여행기를 ‘여행하기’와 ‘여행에 대한 글쓰기/그리기’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먼저, 나혜석의 구미여행은 새로운 해외여행인 만유였으며,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통해 유럽까지 간 최초의 여행이었고, 여행의 목적지는 ‘꽃의 도시, 파리’로 재현되었다. 한편 작가이자 화가였던 나혜석의 여행기는 기행문과 풍경화라는 당대의 새로운 글쓰기·그리기 형식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나혜석의 여행기에 드러나는 다중적 위치성을 검토하고, 해외여행을 통해 성찰된 그녀의 여성주의적 정체성이 여행 후 어떻게 좌절하였는지 확인했다.

주요어 : 「구미만유기(歐美漫遊記)」, ‘꽃의 도시, 파리’, 나혜석, 시베리아 횡단열차, 신여성

Abstract : This study examined the first *Western Travel Writing* by Na Hye-Seok in 1920-30s colonial Chosŏn. As a result of spatial and material practices, Na's *Western Travel Writing* is understandable that travelling and writing/painting about travel. Her travelling was a new type of overseas tourism, the first trip to the Europe by Trans-Siberian Railroad, and the destination was represented as 'Paris, Capital of Flowers'. And her travel writing/painting came into the world owe to new types of writing/painting in those days. In particular, this study examined Na's multiple positionalities and how feminist identity was frustrated after travelling.

Key Words : *Western Travel Writing*, Paris, Capital of Flowers, Na Hye-Seok, Trans-Siberian Railroad, A Modern Woman

I. 서론

나혜석(1896-1948)이 한국 여성 최초로 세계일주 여행을 떠난 것은 1927년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여성의 첫 세계여행에 대한 대중적 관심사는 유럽여행 중 있었던 나혜석과 최린(1878-1958)의 유명한 연애 사건과 귀국 후 이혼과 사회적 배척 속에 행려병자로 사망한 그녀의 비극적 삶에 집중되어 왔다.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자

근대적 작가, 여성운동가로서 나혜석에 대한 재평가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나 시작되었다. 특히 2000년 2월 문화관광부의 ‘문화인물’로 나혜석이 선정되고, 나혜석의 고향인 수원시에 ‘나혜석 거리’가 조성되면서, 문학과 미술, 여성학을 중심으로 나혜석 연구가 본격화되었다.¹⁾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나혜석의 소설과 수필 등에 드러난 여성주의 담론을 드러냈지만, 관심의 초점은 그녀의 작품이 아니라 ‘신여성’으로서의 파격적인 삶과 ‘여성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jinnyhan@knue.ac.kr)

해방' 사상에 놓여 있었다. 여성주의자로서 나혜석에 대한 관심은 프랑스의 조르주 상드(George Sand)나 매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일본의 요사노 아키코(櫻謝野晶子), 중국의 장아이링(張愛玲) 등 동서양의 여성 작가나 사상가와의 비교연구로도 이어졌다(함종선, 2006; 조지숙, 2015; 최정아, 2015). 이러한 경향은 나혜석의 구미여행과 구미여행기 관련 연구에서도 반복되는데, 나혜석의 여행기와 풍경화를 다룬 연구들 또한 나혜석을 당대 조선에서 볼 수 없던 대도시의 '산책자'이자, '근대적' 여성 주체로 그린다(손유경, 2008; 신지영, 2009; 우미영, 2018). 이들 연구들은 오랫동안 왜곡되거나 오해되어왔던 나혜석의 여성주의적 시각과 부조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한 태도 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지만, 동시에 그녀를 파격적인 '신여성', 근대적 '지식인', 혹은 남성 중심적 시대의 '희생자'라는 고정된 이미지에 가두는 한계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시공간적 맥락에서, 여성 나혜석의 구미여행기에 대한 문화지리적 접근을 시도한다. 여행기를 작가의 순수한 문학적 성취로 보는 문학연구와는 달리, 여행기를 여행 주체가 특정한 목적 하에 특정 청중을 대상으로 생산한 의식적 커뮤니케이션의 산물로 이해하고자 한다(박경환, 2018:72). Duncan and Gregory(1999)는 지리학자들은 여행기 텍스트의 '재현의 공간' 뿐 아니라 여행문학의 생산과 연루된 '여행의 공간' 또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여행기를 저자의 주관적 텍스트로 가정하여 텍스트 내부의 독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여성으로서 나혜석의 여행기를 당대의 공간적 실천의 산물이자 물질적 결과로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나혜석의 여행기는 그녀의 소설과 희곡 등과 마찬가지로 단행본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라, 여행 후인 1930년대 대중잡지 『삼천리(1929-1941)』와 동아일보 등에 연재되었던 것이다.²⁾ 연재물의 특성 상 나혜석의 여행기는 하나의 완결된 서사구조를 따르기보다, 여행 경로에 따라 여행지에 대한 정보와 개인적 감상으로 분절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1920~30년대 대중적으로 크게 유행한 연재 기행문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했다. 따라서 나혜석의 구미여행기는 그것이 생산되고 대중적으로 알려진 1920~30년대 조선의 시공간적 맥락을 고려해야만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무엇보다 당대 '여행하기'와 '여행에 대한 글쓰기/그리기' 모두는 의미와 형식 모두에

서 이전 시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나혜석의 여행기 뿐 아니라, 나혜석의 수필, 시, 인터뷰 등의 자료 등을 분석하고, 1900~1930년대 말 근대 신문·잡지의 문헌 분석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맥락에서 여행의 공간이 어떻게 생산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³⁾

이 글은 나혜석의 구미여행기를 크게 '여행하기'와 '여행에 대한 글쓰기/그리기'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먼저, 여행의 동기, 여행의 방식, 목적지를 통해 나혜석의 구미여행의 성격을 고찰했다. 이때 나혜석의 여행기 텍스트에 재현된 공간 뿐 아니라, 여행기 생산에 관련된 당대의 지리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려고 했다. 이어서, 나혜석의 여행기와 풍경화를 근대적 기행문과 사생을 통한 풍경화라는 새로운 여행기 형식의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했다. 특히 여행하는 여성이자 여행기 생산 주체로서 나혜석의 여행기에 드러나는 다중적 위치성을 고찰하고, 구미여행을 통해 성찰된 나혜석의 여성주의적 정체성이 여행 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좌절하였는지를 확인했다.

II. 나혜석의 구미여행의 성격에 대한 고찰

1. 여행의 동기: 만유(漫遊)

식민지 조선인에게 해외, 그 중에서도 '구미(歐美)'로의 이동은 극히 제한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해외여행이라는 쉽지 않은 경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차 커져, 1900년대가 되면 조선으로 입국하거나 조선을 경유하는 해외여행자의 소식이 주요 신문기사로 자리 잡는다. 당대 언론에서 '해외여행'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크게 '여행', '관광', '만유' 등이 혼용되고 있다.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을 가리키는 '여행(旅行)'과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함'을 의미하는 '관광(觀光)', 그리고 '한가로운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며 구경하고 놀'을 뜻하는 '만유(漫遊)'는 모두 한자어이지만, 모두 근대 일본에서 'travel', 'tourism'의 번역어로 선택되었거나, '유람(遊覽)' '주유(周遊)' 등과 유사하던 전통적 개념이 여행경로를 따라 주로 해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새로운 형식의 여행을 뜻하는 말로 변화한 것이다.

서구에서는 보통 과거의 '여행'은 종교나 건강상의 이

유와 같은 특별한 동기에 기반하며, 비싸며 힘들고, 심지어 위험한 것이었으나, 1841년 토마스 쿡(Thomas Cook)의 단체관광의 등장 이후 즐거움과 유흥을 동기로 하고, 저렴하고 편리한 이른바 ‘관광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이해한다(한지은, 2019). 그러나 서구의 전통적 여행과 새로운 대중관광(mass tourism)의 개념이 동시에 유입된 근대 아시아에서는 ‘여행 대 관광’ 이분법보다는 여행, 관광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근대 지식인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는 「여행의 진보 및 퇴보(旅行の進歩及退歩)」(1927)에서 “여행은 근심스럽고 괴로운 것이었다. 이전에는 참는 것이고 노력이었다. 그 노력이 크면 클수록 더욱 커다란 동기 또는 결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여행의 목적은 국한되어 있다. 즐기 위해 여행을 하게 된 것은 전부 신문화 덕분이다”(나카네 다카유키, 2010:52 재인용)라고 당대 일본에서 여행의 의미가 변화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즉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것이었던 여행이 즐거움을 동기로 하는 관광의 의미를 포섭하게 된 것이다.

한편 근대 조선에서 해외여행을 지칭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된 말은 ‘만유’이다. ‘만유(漫遊)’라는 단어는 과거에도 있던 말이지만,⁴⁾ 1900년대 이후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며 놀’을 의미하는 ‘순유(巡遊)’와 함께, 주로 해외의 여러 지역을 경유하는 여행(관광)을 가리키는 말로 보편화되었다. 1900년대 초까지 만유라는 말은 주로 각국의 왕족이나 귀족 등의 해외 순방(巡訪) 기사에 등장하기 시작한다(황성신문, 1899년 3월 9일자). 이후 주로 구미의 ‘단체만유단(團體漫遊團)’, 즉 단체관광객이 일본, 중국 등을 경유하여 조선을 방문하는 일이 증가하는데, 1919년에는 외국인 만유객의 급증을 다루는 기사까지 확인할 수 있다(매일신보, 1919년 5월 6일자). 한편 1910년대부터는 주로 조선과 만주를 방문하는 일본인 관료들의 이른바 ‘선만만유(鮮滿漫遊)’ 기사가 뚜렷이 늘어나다가, 1920년대가 되면 조선인의 중국과 일본 여행을 다루는 기사가 급증하는데, 심지어 중국 “만유를 간관 삼아” 채무를 피하려한 윤홍섭의 일화도 소개되고 있다(동아일보, 1920년 6월 30일자).

조선인의 해외여행, 그 중에서도 단체관광 성격의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것은 1920년대 일본 식민지통치의 일환으로 이른바 ‘내지관광(内地觀光)’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부터이다. 매일신보에는 신문사가 주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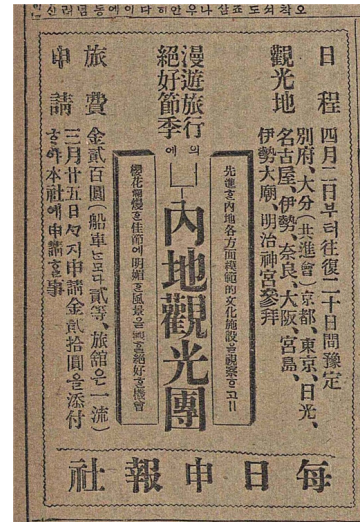


그림 1. 내지관광단 안내 광고

출처 : 매일신보, 1921년 3월 7일자.

‘만유여행(漫遊旅行)’의 ‘절호계절(絶好節季)’에 떠나는 내지단체관광 광고가 주기적으로 등장한다. 광고에는 ‘선진(先進)한 각 방면의 모범적 문화시설을 관찰하고, 벚꽃이 만발한 계절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절호의 기회라고 적고 있다.⁵⁾

처음에는 중국과 일본으로 한정되어 있던 조선인의 만유는 1920년대에는 ‘구미만유(歐美漫遊)’, ‘세계만유(世界漫遊)’ 등과 같이 유럽과 미국 등 세계로 확대되었다. 여전히 보통 사람이 꿈꾸기엔 쉽지 않은 해외여행 소식은 그 출발부터 대중의 관심거리였고, 더욱이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로 이미 유명했던 나혜석이 조선 여성 최초로 세계만유를 떠난다는 소식은 흥미로운 기사거리였다(조선일보, 1927년 6월 21일자).

휴양, 순례, 시찰, 교육, 쾌락에 이르기까지 여행의 동기는 다양하며, 보통 여러 가지 동기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혜석의 여행 동기를 하나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여행 전 인터뷰 기사와 여행기 서두의 ‘떠나기 전 말’을 통해 나혜석의 여행의 동기를 살펴보면 당대 남성 지식인과는 상당히 이질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 나혜석의 구미여행을 전후하여, 박승철⁶⁾, 정석태⁷⁾, 허헌⁸⁾ 등 남성 지식인의 구미만유가 잇달았고 이들의 여행기는 신문과 잡지 등을 통해 발표되었다. 주로 정치인, 법조인, 사회활동가 등이었던 남성 지식인들은 대부분 여행의 동기를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보다

발전된 서구 사회에 대한 견문과 시찰에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나혜석은 자신의 여행의 동기를 '서구의 예술'과 '서구의 여성 활동'을 보고 싶고, '서구인의 생활'을 맛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승철과 나혜석의 여행의 동기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다.

인생의 최대 욕망은 다지(多知)에 있으며, 다지는 다견(多見)에 있고, 다견은 세계를 편견(遍見)하는 것만 같지 못하니, 그럼으로 나는 인생의 최대 욕망은 세계를 보고 싶어 하는 세계만유(世界漫遊)에 있다고 한다. 나는 이 의미에 있어서 본국인사에게 세계만유를 권하니, 이것이 개인의 욕망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살림을 보아서 우리 살림을 고치는데 적지 않은 이익이 있는 까닭이다. 기간은 약 10개월, 여비는 12,000원으로 구미(歐米) 10개국을 볼 수 있나니, 이것이 용이한 것은 아니나, 구미를 본 후에 비로소 본국에 앉아 상상하던 것 보다, 여러 가지 점이 다른 것을 알 것이다.

(박승철, 1925:71)

내게 늘 불안을 주는 네 가지 문제가 있었다. 즉 첫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둘째, 남녀 간 어떻게 살아야 평화스럽게 살까. 셋째, 여자의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넷째, 그림의 요점이 무엇인가. 이것은 실로 알기 어려운 문제다. 더욱이 나의 견식, 나의 경험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러면서도 돌연히 동경되고 알고 싶었다. 그리하여 이태리나 볼란서화단을 동경하고 구미 여자의 활동이 보고 싶었고 구미인의 생활을 맛보고 싶었다.

(나혜석, 1932d:60)

박승철과 나혜석은 모두 해외여행의 동기로서 '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만유라는 새로운 여행의 동기는 근본적으로 이곳과는 다른 세계를 널리 보고 싶은 시각적 욕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여성주의 연구자들은 '관광객의 시선(tourist gaze)'으로 대표되는 관광의 시각적 쾌락이 남성중심주의적임을 지적해왔다. 한편 여성주의 지리학자 Rose(1993)는 야외조사를 중시하는 지리학의 연구 전통을 지적하면서 지리학의 경관 연구가 이성애적 남성의 시선과 깊이 연계되어 있음을 비판하기도 했다(정현주 역, 2011). 따라서 기존 관광객의 시선에 대한 해석이 근본적으로 보여 지는 대상으로서의 경관과 그와는 분리되어 있으나 주로 남성인 보는 주

체의 시각적 우위를 전제하였다면,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여성 관광객은 시각적 우위를 즐기기보다는 여행 중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신체적 '접촉(touching)' 등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고 주장한다(Larsen and Urry, 2011:1111).

사회 계몽이나 견문의 확대라는 동기를 들어 여행에서 볼거리를 찾아다니는 개인적 욕망을 감추는 남성 작가와는 달리, 나혜석은 자신의 여행이 잘 알려진 유럽의 유명 관광지, 즉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임을 드러내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따라서 관광객의 시선을 통한 시각적 이미지의 소비는 나혜석의 유럽 여행에서도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다.

금강산을 보지 못하고 조선을 말하지 못할 것이며 닛고(日光)를 보지 못하고 일본의 자연을 말하지 못할 것이요, 쑤저우(蘇州)나 항저우(杭州)를 보지 못하고 중국을 말하지 못하리라는 것 같이 스위스를 보지 못하고 구라파를 말하지 못하리라는 것만큼 구라파의 자연경색을 대표한 나라가 스위스요, 그 중에도 제일 화려하고 사람 운집한 곳이 이 제네바이다.

(나혜석, 1933b:39)

그러나 남성 지식인의 여행기와 나혜석의 여행기에는 그 시선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보통 남성 여행 주체의 시선 변화는 서구에 대한 동경 속에 출발하여, 서구에 도착하여 근대와 진보를 직접 확인한 후에는, 조선의 봉건적이고 낙후한 현실에 대한 좌절이나 각성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반면 나혜석은 열차를 타고 만주를 지나며 "창춘(長春)만 해도 서양 냄새가 난다"거나 폴란드에 들어서서는 "이만 해도 서양 냄새가 충분히 나는 것 같다"고 기대를 드러내지만, 막상 유럽에 도착해서는 서양 문명의 위계를 재확인하고 조선과 비교하는 일은 거의 없다. 나혜석은 영국에 공원이 많은 것을 두고는 "공원은 전부 돈 덩어리다"라고 하거나, 프랑스는 "파리를 제하고는 국내 변변한 도시가 없다"면서 파리 또한 "오직 물가가 싸고 인심이 평등자유며 시설이 화려함으로 모여드는 외국인의 향락장"이 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나혜석의 시선은 서구의 발전된 기술이나 도시의 시설들이 아니라, 도시 공간에서의 낭만적 연애와 자유로운 구미 여성의 삶에 놓여있었다. 런던의 공원에서 젊은

남녀가 “서로 끼고 드러누워” 있는 모습을 편견 없이 바라보고, 베를린의 신년 새벽 거리에서는 누구라도 입맞춤이 가능하여 남녀가 쫓고 쫓기는 모습을 유쾌하게 그린다. 심지어 에스파냐 여성들은 “반드시 사랑의 보답을 한다는 전설”을 듣고는 더욱 유심히 보았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한편 당대 조선 여행자들의 해외여행은 대부분 증기선을 통해 이뤄졌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남성 지식인의 여행기에서 증기선은 보통 “서구적 삶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는 공간이자 근대 문명의 교육장”으로 그려졌다(곽승미, 2006a:258). 즉 증기선은 ‘문명=서구’라는 관광객의 시선을 재확인하는 공간이었다. 반면 5천 톤급의 마제스틱호를 타고 파리에서 미국으로 이동한 나혜석이 증기선에서 주목하고, 심지어 부러워한 것은 다양한 오락을 밤낮으로 유쾌하게 즐기는 ‘싱싱한 육체’에 있었다.

곳곳에 살롱 즉 응접실이 있고 스모킹룸, 객실, 오락실, 레스토랑, 유흥실, 수영실, 아동유흥실, 도서실이 있고 예배당이 있어 큰 호텔 같은 감이 생긴다. …… 낮에는 낮대로 놀고 밤에는 밤대로 놀 수 있다. 과연 그들은 싱싱한 신체로 유쾌히 논다.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아닌 것이 없다.

(나혜석, 1934b:135)

2. 여행의 방식: 시베리아 횡단철도

나혜석은 1927년 6월 19일 부산진역에서 출발하여 1년 8개월 23일간 유럽 각국을 여행한 후 1929년 3월 12일에 부산항을 통해 귀국하였다. 나혜석의 인터뷰와 여행기 등을 통해 구체적인 여행 경로를 파악해보면, 1927년 6월 19일 부산진역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를 지나 파리로 직행하여 약 7개월간 체류하였고, 10일간 스위스 여행 후 파리로 돌아왔다가, 벨기에와 네덜란드 여행 후 다시 파리에서 잠시 프랑스어를 공부한 후, 독일과 런던 등을 한 달간 여행한 후 마지막으로 파리로 돌아왔다. 이듬 해 이탈리아와 에스파냐 여행 후, 기선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워싱턴D.C., 필라델피아, 시카고, 그랜드캐니언,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여행 후, 기선을 타고 17일 만인 3월 요코하마에 도착한 후 부산으로 귀국했다(표 1).

도보 여행, 철도 여행, 자동차 여행, 항공 여행까지 교통수단은 여행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교통수단은 여행

의 경험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여행의 글쓰기와 여행자적 정체성을 구성한다. 또한 여행에서의 교통수단은 여행의 유형과 사회적 관계 특성 뿐 아니라, 여행 일정, 목적지, 여행의 리듬을 결정짓기도 한다. 따라서 교통수단은 여행자가 무엇을, 어떻게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 쓰게 되는지와 같은 여행자의 인식과 지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Morin, 2006:503).

나혜석의 여행에서 주목할 교통수단은 열차, 그 중에서도 시베리아 횡단열차이다. 나혜석은 조선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열차를 이용해 이동했는데, 만철과 연결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까지의 이동하는 내용이 담긴 여행기는 나혜석의 것이 최초로 확인된다.⁹⁾ 나혜석보다 앞서 유럽을 여행한 사람들의 여행 경로는 보통 일본에서 출발하는 증기선을 이용하여, 중국 상하이(上海)나 홍콩, 싱가포르 등 여러 도시를 경유하여 프랑스 마르세유항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반면 나혜석이 철도를 이용해 이동한 노선을 살펴보면, 경성역에서 경의선을 타고 안동(安東, 현 단동)까지, 안동-평탄(奉天, 현 선양)-하얼빈(哈爾濱)-창춘(長春)-만저우리(滿洲里)까지는 ‘만철(滿鐵)’의 동지철도(東支鐵道) 구간을 이용하고, 만저우리에서부터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환승하여 모스크바로 이동한 후, 폴란드를 거쳐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1907년 개업한 만철은 1910년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한 국제선 영업을 시작하였고, 1905년 완공된 경의선이 1911년 압록강철교¹⁰⁾를 통해 안동-평탄간 안평선(安奉線)과 연결되면서, ‘만선직통열차(滿鮮直通列車)’를 타고 부산에서 창춘까지 한 번에 이동이 가능해졌다(매일일보, 1912년 6월 1일자). 나혜석은 안동과 하얼빈, 창춘, 모스크바 등 철도가 경유하는 도시들에서 하차하여 일정 기간 여행 한 후 다시 철도로 이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조선에서 파리까지의 정확한 이동 시간과 여행 경비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통해 대략적인 유추는 가능하다. 나혜석의 여행을 전후하여 “도쿄에서 베를린까지가 열차로 16일에 요금은 600원”(동아일보, 1926년 7월 7일자), “일수, 금액은 해로(海路)의 반액”(시대일보, 1925년 1월 23일자) 등의 기사가 자주 게재되었는데, 비용과 시간 면에서 기선보다 훨씬 경제적인 철도 여행에 대한 조선 사회의 대중적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표 1. 나혜석의 여행 경로와 여행지

국가	여행지(도시: 관광지)	원전 제목	출처
중국(만주)	安東(만주) 奉天(선양) 長春(장춘) 哈爾濱(하얼빈) 滿洲里(만저우리)	쏘비엠티亞行, 歐米遊記의 其一	「삼천리」 제4권 제12호(1932.12.1)
모스크바 금행열차	치파(치타) 우엘네우진스크(울란우데) 크라스노야르스크(다이카) 톱스크(노지빌수쿠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수엘돌후스쿠예카테린부르크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	모스크모스크바: 시주긴미술관 푸시킨미술관, 도레자고후미술관 트레티야코프미술관, 구레무링궁궐 크렘린궁전, 레닌墓	СССР 歐米遊記 其二	「삼천리」 제5권 제1호(1933.1.1.)
폴란드	왈샤바르샤바	伯林과 巴里	「삼천리」 제5권 제3호(1933.3.1.)
프랑스	바뮈파리		
스위스	베시가드(벨가드르) 제네브(제네바) 몬트리외(몽트뢰) 古城(시옹성) 난쎄(안시) 싸레분(샬레브산) 인터라징(인터라켄) 융후라(융프라우) 베른(베른)		
프랑스	바뮈파리	西洋藝術과 裸體美, 歐美一週記	「삼천리」 제5권 제10호(1933.10.1.)
벨기에	뿌랏셀브뤼셀		
네덜란드	안도아브(안트워프) 암스트루담(암스테르담) 말켄도(마르켄섬) 海牙(헤이그)	꽃의 巴里行, 歐米巡遊記 續	「삼천리」 제5권 제4호(1933.4.1.)
프랑스	바뮈파리: 聖테니寺(생트니수도원), 聖에디메디옹寺(에티엔뒤몽교회), 聖솔비사원(생쉴피스교회), 마들린(마들렌성당), 애가데미 푸란세(아카데미프랑세즈), 에투알(개신관), 콩폴도(콩코르드광장), 그랑팔레(그랑팔레) 프티팔레, 뮈사니(공동묘지) 페르세즈모지, 벨사유(그랑도리아궁궐) 베르사유궁전, 노틀담(도릭) 노트르담성당, 땡데옹(팡데옹), 에벨담(에펠탑), 앙발니드(라팔름) 앙발리드나폴레옹묘소, 루블(루브르박물관), 크루니(루브르) 클뤼니박물관, 룩상블(미술관) 뉘상부르(미술관)		
독일	버른(베를린): 포스담(궁궐) 포츠담궁전	伯林에서 倫敦까지, 歐米遊記의 續	「삼천리」 제5권 제9호(1933.9.1.)
영국	倫敦(런던): 하이드파크(하이파크), 큐가든(큐가든), 켄싱턴(켄싱턴가든), 聖제임스(세인트제임스파크), 로얄애가데미(영국왕립예술원), 빅토리아앨버트미술관, 프리디스뮤제(대영박물관), 나쇼날(국립미술관), 에벡(에벡미술관), 우에스트민스터(웨스트민스터성당), 그리니취(그린위치) 그리니치천문대, 우인자(우인자정원) 옥스포드(옥스포드대학)		
이탈리아	밀란(밀라노): 돔도모성당, 산타마리아엘레그라치에 수도원, 미켈란젤로 무덤, 개신교, 푸레라갈라레브렐라미술관 베니스(베네치아): 산마르코(산마르코성당), 도지궁(도제궁전), Galler a Arte Moderna(국립현대미술관), 아카데미(아카데미아미술관) 폴로렌스(피렌체): 크로체(크로체성당), 우후이지(우피치미술관)	伊太利美術館	「삼천리」 제6권 제11호(1934.11.1.)
		伊太利美術紀行	「삼천리」 제7권 제2호(1935.2.1.)
에스파냐	쌍셀바(쌍안산) 세바스티안(마드리드): 마드리드궁전, 고야 묘, 뿌라도(미술관) 프라도미술관-드레도틀레도: 에루구레(에르레코전시관)	情熱의 西班牙行 (世界一週記 續)	「삼천리」 제6권 제5호(1934.5.1.)
미국행	마제스티코	巴里에서 紐育으로 (世界一週期 續)	「삼천리」 제6권 제7호(1934.6.1.)
미국	뉴욕(뉴욕): 걸넘비아(컬럼비아대학), Woolwool(울워스빌딩), Metropolis(메트로폴리탄박물관), Rusbelt(러셀트) 루스벨트생가, paramount(파라마운트) 활동寫真館(파라마운트극장), 자유(자유)의 여신상(와싱턴워싱턴 D.C.): 舊韓國(舊韓國) 公使館(주미대한제국공사관), 린컨(린컨) 링컨기념관, 백인관(백악관), 議會(국회의사당), 콩고리드(처치) 콩고리드(교회) filnaiolpic(필라델피아-라이갈) 나이가라폭포-치카고(시카고)-그랜드키아(그랜드캐니언)-로스앤젤레스(로스앤젤레스: Hole wool(할리우드)-요세미테(요세미티공원)-桑港(샌프란시스코: 金門公園(金門교공원)		
귀국행	다이요마루호	太平洋 건너서 (歐米遊記 續)	「삼천리」 제6권 제9호(1934.9.1.)
미국	호노룰루(호놀룰루): 누아누파리(누아누팔레), 뽀지부르(뽀지부르), 파이아몬트(파이아몬트헤드), 와이키키(와이키키수족관), 비츠부(비츠부박물관)		
일본	橫濱(요코하마)-東京(도쿄)		
한국	부산		

* 지명은 원문 표기(현재 표기)로 표기하였음.

종래 일본에서 서구(歐洲)를 가려면 해로로 인도양과 지중해를 거쳐서 파리를 가는데 45일 내지 46일, 런던에는 50일간을 요하고, 또 태평양으로부터 미국대륙을 경유하여 파리까지 25일, 런던까지는 30일이 걸렸는데, 과반에 구주각국과 연락회의의 결과 구주의 직통열차를 운전하게 되면 베를린까지 13일, 파리는 14일, 런던은 15일이면 도착하게 될 터이라 한다. 그러면 종래에 구주일자의 삼분의 일을 가지고 될 수가 있으며, 종래 1,800원의 경비를 들이던 것이 직통열차로 가면 890원 내외 밖에 안 됨으로 이제부터는 구주와 동양의 관광단이든지 또는 경제상 관계로든지 상당한 효과를 얻을 줄로 기대하는바, 실현이 되는 때는 부산, 창춘, 모스크바 3개소에서 환승될 것이라는데 철도성에서는 묵하 차표와 시간표를 제작중이라더라.

(매일신보, 1927년 1월 16일자)

철도는 공간적으로 상반된 영향을 유발한다. 여러 장소를 서로 가깝게 연결함으로써 공간을 수축시키고 그 사이에 위치한 많은 장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철도가 없었다면 결코 연결되지 않았을 장소를 연결함으로써 공간을 팽창시킨다(박진희 역, 1999; 강현수·이희상 역, 2016:189 재인용). 이러한 특성은 나혜석의 여행기에도 반영되는데 먼저 경유하는 도시의 철도역에 내려 지역을 여행 후 다시 철도로 여행을 계속하는 철도 여행의 특성 상 철도가 연결되는 도시와 그 주변을 제외하고는 나혜석의 여행기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조선에서 만주, 소련과 폴란드를 한 번에 연결하며 달리는 열차에서 지역 간의 차이는 철도역의 풍경, 역무원의 복장 및 업무 방식의 차이 등으로 확인되는데, 특히 나혜석은 열차를 경비하는 이들의 외양과 행동이 해당 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흥미롭게 그리고 있다.

부산서부터 신의주까지 매 정차장 백색 정복에 빨간 테두리의 정모(定帽)를 쓴 순사가 1인 혹 2인씩 번쩍이는 칼을 잡고 소위 불령선인(不逞鮮人)의 승강에 주의하고 있다. 안동현에서 창춘까지는 누런 복장에 약간의 적색을 띠는 누런 정모를 쓴 만철(滿鐵) 지방 주임순사가 피스톨 가죽 주머니를 혁대에 차고 서서 이곳이 비록 중국이나 기차 연선이 만철의 관할이라는 자랑과 위엄을 보이고 있다. 창춘서 만저우리까지는 검은 회색무명을 군데군데 누빈 복장으로 입고 어깨에 3등 군졸의 별표를 붙이고 회색 정모

를 비스듬히 쓰고 일본유신시대 칼을 사다가 질질 길게 차고 가슴이라도 찌를 듯한 창검을 빼들고 걸인이 휴식하고 있는 중국보병 기차 도착 시와 출발 시에 두발을 꼭 모아 기착(氣着)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몽고로 내침하는 마적을 방어하는 모양이겠다. 러시아관할 정차장에는 출찰구에 종이 하나씩 매달려 있다. 그리하여 기차가 도착되면 그 즉시 종을 한번만 때린다. 그리고 출발할 때는 두 번 울리고 곧 호각을 불고 어떻게 할 새 없이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종소리와 호각소리는 호의로 취하려면 간단 명백하고 악의로 취하려면 방정맞고 까부는 것 같았다. 늘씬한 아라사 사람과는 도무지 조화가 들지를 아니한다.

(나혜석, 1932d:61-62)

한편 나혜석의 여행기에서는 기존에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시베리아의 여러 도시들이 철도역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1927년 5월 15일부터 모스크바행 급행열차의 환승역이 기존 소련 치타에서 만주 쪽인 만저우리로 변경되면서 나혜석은 만저우리에서 침대차를 타고 치타-울란우테-크라스노야르스크-톰스크-노보시비르스크-옴스크-예카테린부르크-모스크바에 이르는 구간을 한 번에 이동하였다. 소비에트혁명 이후 러시아의 상황에 관심이 지대했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나혜석은 옴스크를 지나며 부서진 집들에서 “혁명 당시 참극의 흔적”을 떠올리고, 예카테린부르크에서는 러시아 황제 일가가 “죽기 전에 이곳에 서성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백설의 평원에 “시베리아인이 썰매를 타고 질주할 것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설국으로 대표되는 시베리아의 낭만적 재현도 등장한다.

모스크바에 가까워 오는 농촌 일면이 거의 감자로 깔렸다. 연선 좌우에는 걸인이 많고 정차장에는 대합실 바닥에 병자, 노인, 소아, 부녀들이 혹 신음하는 자, 혹 우는 자, 혹 조는 자, 혹 두 팔을 내리고 앉은 자, 담요를 두르고 바람을 옆에 끼고 있는 참상, 러시아혁명의 여파가 이러한 줄 어찌 가히 상상하였으랴. 러시아라면 혁명을 연상하고 혁명이라면 러시아를 기억할 만큼 시베리아를 통과할 때는 무엇인지 모르게 혈성(血腥)의 공기가 충만하였다.

(나혜석, 1933a:46)

철도 여행은 기존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었던

여행이 대중관광으로 확대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또는 여행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었다. 철도 여행은 지역 간 거리 뿐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놓여 있는 거리감 역시 줄인다. 사람들이 함께 여행하고, 모든 사회계급들이 열차에서 만나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운명들, 사회적인 지위, 행동 양식들, 의상들로 이뤄지는 일종의 생생한 모자이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박진희 역, 1999:94). 나혜석이 그리는 열차 내부 풍경은 그런 면에서 국적이나 남녀의 위계와 상관없이 매우 평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인데,¹¹⁾ 열차 안에서 오로라를 발견하고는 다른 승객들과 함께 ‘오로라’라는 창가(唱歌)를 부르기도 하고, 열차 안에서는 내외하지 않고 부부가 ‘마주앉아’ 음식을 먹는 상황을 풍요롭고 재미있게 느꼈다.

정거장마다 그토지 농민 부녀들이 계란, 우유, 돼지고기 쪼른 것을 들고 판매점에서 여행객에게 사가기를 청하고, 소녀들은 등에 피어있는 향기가 강한 은방울 꽃다발을 가지고 여행객에게 권하는 특수한 정취를 맛보게 된다. 기차 보이가 가져다주는 꽃을 먹고 남은 통조림통에 꽃아놓고 구매한 음식을 탁자 위에 벌여놓고 부부가 마주앉아 먹을 때 우리 살림살이는 풍부하였고 재미있었다.

(나혜석, 1933a:46)

한편 서구에서 대중관광의 성장은 철도, 증기선과 같은 효율적이고 저렴한 교통의 발달, 교육 받은 중산층의 성장, 노동생산의 향상으로 인한 여가의 증대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토마스 쿡으로 대표되는 여행사 등 관광 조직의 발달을 통해 이뤄졌다(한지은, 2019). 나혜석이 구미여행을 한 1920년대 조선은 ‘원족(遠足)’과 ‘하이킹’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 여행이 빠르게 증가하고, 소설과 수필 등 근대 문학의 ‘독자’가 탄생한 시기였다(천정환, 2014). 동시에 철도와 증기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일본 등을 목적지로 한 단체관광도 증가하면서, 신문과 잡지에 연재되는 해외여행기는 독자들로 하여금 해외여행도 더 이상 불가능한 상상이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었다. 나혜석의 구미여행은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하였으며, 관광을 추동하는 새로운 수단과 조직 등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일례로 나혜석은 유럽 지역의 여행에 토마스 쿡 여행사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토마스 쿡의 자동차로 브뤼셀 시가

지 구경을 나설 때에는 “안내자는 적어도 5, 6개국 국어를 능통하여 손님대로 각국어로 설명을 한다”면서 만족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tourism’이 회전이나 순환을 의미하는 라틴어 ‘tornus’에서 유래한 것처럼 관광은 근본적으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속성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정주지와는 가능한 한 다른 곳에서, 일상과는 가능한 한 정반대의 행태를 추구하도록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이동과 전도(顛倒)의 경험 이 결국 일시적이라는 가정 하에 이뤄진다. 나혜석은 조선에서는 하지 못했을 경험과 구경하지 못했을 장소들에서는 깊은 감동을 드러내지만, 그와 동시에 결국은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아쉬움을 토로한다. 여행과 일상의 대비가 끝나는 상황에서 느끼는 급락(急落)의 감각은 여행이 끝난 직후 익숙했던 장소로 돌아와서 가장 극대화되는데, 이는 마치 “활짝 피었던 꽃이 바람에 떨어지듯”하다고 표현했다.

요코하마에 도착한 때부터 가옥은 나뭇간 같고 길은 시궁창 같고 사람들의 얼굴은 노랑고 등은 새우등같이 꼬부라져 있다. 조선에 오니 길에 먼지를 뒤집어쓰는 것이 자못 불쾌하였고, 송이버섯 같은 납작한 집속에서 올려나오는 다듬이 소리는 처량하였고, 흰옷을 입고 시름없이 걸어가는 사람은 불쌍하였다. 이와 같이 활짝 피었던 꽃이 바람에 떨어지듯, 푸근하고 늘씬하던 기분은 전후좌우로 바짝바짝 오그라들기 시작하였다.

(나혜석, 1932a:43).

3. 여행의 목적지: ‘꽃의 도시, 파리’

프랑스 파리는 나혜석의 구미여행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 장소이다. 나혜석은 파리에 8개월간 체류하며, 스위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여러 지역을 여행하였고, 파리의 한 가정집에서 3개월간 머물며 프랑스 가정의 생활을 경험하고, 아수파 화가인 로제 비시에르(Roger Bissiere)의 화실에서 서양화를 배우기도 했다. 최초의 서양화가 중 한명이었던 나혜석에게 파리는 여행의 진정한 목적지이자, 자녀 셋을 두고 떠난 구미여행의 동기 그 자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당시 유럽에 체류 중이던 최린과의 부적절한 만남의 장소가 파리였기 때문에, 파리는 ‘신여성’ 나혜석에게 비극적 삶

의 계기를 제공한 위험한 장소로 알려지기도 했다.

파리에 도착하기 전에 나혜석의 상상 속 파리는 그녀의 여행기 제목이기도 한 ‘꽃의 파리’였다. 서구에서는 보통 파리를 사상의 중심지를 의미하는 ‘빛의 도시’¹²⁾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것과는 달리, 파리를 ‘꽃의 도시’로 칭하는 것은 20세기 초부터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문헌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한국에서는 ‘꽃의 도시’ 또는 ‘꽃 서울’로, 일본에서는 ‘하나노미야코(花の都)’, 중국에서는 ‘화두(花都)’ 등으로 불렸다. 한국 근대 문헌에서 이러한 별칭이 처음 확인되는 문헌은 최초의 근대 잡지인 최남선의 「소년(少年)」 1909년 5월호의 ‘세계화설(世界畫說)’이라는 제하의 글이다. 세계 각국의 도시, 건축물 등을 화보와 함께 소개하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세계의 화도’를 묘사하고 있다.

파리시는 센 강변(江畔)에 있는 프랑스국의 서울(京城)이니 시가의 화려함(華美)과 가옥의 웅장함(壯麗)함과 공원(園), 교통 등 설비의 완전함이 세계에 둘도 없으니, 고로 ‘세계의 화도(花都)’ ‘세계의 대공원(大公園)’ 등 별명이 있으며, 서양각국(泰西各國)의 의복, 장식 등 새로운 모양은 모두 여기에서 시작하나니라.

(최남선, 1909:33)

최남선은 이어 1914년 10월 「청춘(青春)」의 창간호에 수록된 창가 ‘세계일주가’에서도 파리에 대해 “오래두고 그리던 꽃서울이다 …… 이 세상 낙원(樂園)이란 꽃다운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 세계일주가는 서울에서 시베리아 열차를 이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 여러 도시를 여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까지 세계여행의 경험이 없던 최남선은 19세기말부터 일본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세계일주를 다룬 기행문과 여행안내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내용을 구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미지, 2019:171-172). 사전적으로 ‘花の都’는 ‘변화한 도읍’ 혹은 말 그대로 ‘꽃이 한창인 도읍’을 의미하는데, 점차 ‘수도(首都)’, 나아가 대도시의 변화함과 아름다움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따라서 19세기 세계적 대도시이자 이른바 ‘모더니티의 수도’¹³⁾였던 파리의 별칭으로 ‘꽃의 도시(수도)’라는 별칭이 탄생하였고, 당시 서구에서 유입된 개념의 전파 과정이 대부분 그러하듯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과 중국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1914년 ‘세계화도(世界花都)의 24시’라는 제하의 매일

신보 기사에는 개설편과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 시가지 사진과 함께 “세계 시체(時體)의 근본을 발하는 곳으로, 세계에 제일 변화한 도회, 세계에 제일 아름다운 도회로 유명한 법국 서울의 파리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을 만큼 이미 1910년대 조선인에게 파리는 유행과 변화함, 아름다움의 도시로 그려졌다. 이처럼 대도시 파리의 변화함과 화려함을 ‘꽃’으로 은유하는 방식은 점차 예술, 유행, 로맨스와 에로스, 소비문화, 심지어 사치, 향락, 퇴폐 등의 맥락으로 확대되었고, 주목할 점은 이러한 파리에 대한 이미지가 대부분 ‘여성적인 것’으로 재현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1920~30년대 신문과 잡지에는 모자, 여성복 등 파리의 최신 유행 패션을 소개하거나, ‘꽃서울 파리’에서 유행하는 새로운 춤이나 화장법에 대한 기사와 화보사진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그 대부분은 ‘여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극도로 발달된 문명을 자랑하고 현대미의 극 첨단을 걷는 화려사치의 총본영 꽃의 도시, 유행의 표본지, 세계 ‘에로’의 중심인 파리의 거리를 장식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날씬한 허리, 빨간 입술, ‘스마트’한 정조(情調) 기분에 시각을 현혹케 하는 ‘모단깁’, ‘에로깽’ 들의 총출동일 것이다.

(매일신보, 1931년 2월 13일자)

따라서 파리를 여행하기 전까지 나혜석에게 파리라는 도시는 이러한 당대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나혜석이 실제 도착하여 본 파리는 상상 속 파리와는 달리 ‘어두침침하고’, 심지어 ‘음침한’ 모습이었다. ‘꽃의 파리’라는 여행 이전에 구성된 관광객의 시선이 실제 파리의 첫인상과는 다름을 솔직히 드러낸 후, 나혜석은 파리의 진짜 모습은 짧은 여행에서가 아니라 ‘오래오래’ 두고 보았을 때야 비로소 알아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파리라면 누구든지 화려한 곳으로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파리에 처음 도착할 때는 누구든지 예상 밖인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날씨가 어두침침한 것과 여자의 의복이 검은색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때 첫 인상은 화려한 파리라는 것보다 음침한 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은 오래오래 두고 보아야 파리의 화려한 것을 조금씩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나혜석, 1933c:80)

나혜석에게 오래 두고 보아야 할, 심지어 떠나고 싶지 않게 하는 파리의 진면목은 ‘예술’에 있었다. 앞서 여행 경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나혜석의 구미여행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는 구미 여러 도시의 수많은 미술관, 박물관들이다. 물론 1920년대 박승철, 노정일 등의 해외 여행기에서도 박물관은 교통시설, 공원과 식물원 등과 더불어 서구의 ‘문화=문명’을 습득하는 중요한 장소로 그려지고 있지만(차혜영, 2004:17), 서양화가인 나혜석에게 각국의 미술관은 ‘미술의 요점’을 알기 위한 구미여행의 동기와 목적 그 자체를 환기하는 장소였다. 나혜석은 여행 중 방문한 미술관의 소장품의 수준과 전시방식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각국 유명 화가의 화풍(畫風), 주요 화파(畫派), 당대 예술의 경향에 대한 전문가적 분석을 덧붙이려고 노력했다. 여행 후에는 조선에서는 돈을 가지고 사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유럽의 명화들을 수백 점 가져온 것이 구미여행의 가장 큰 소득이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따라서 파리는 나혜석에게 여행 이전에 만들어진 ‘꽃 서울 파리’에 대한 관광객의 시선을 확인하는 여행지가 아니라, 서양화가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확인하게 하는 장소였다. 스위스 여행 후 파리로 돌아온 후 나혜석은 “본래 파리는 무엇을 배우러온 것 같은 감(感)이 있어 별로 구경할 맛이 없다”면서 또 다른 유럽 도시로의 여행을 준비하는데,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 보게 되는 건축이나 미술관의 특징은 늘 파리와 비교를 통해 평가되며, 즐거운 여행 끝에 ‘돌아오는’ 곳도 파리이다. 심지어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의 〈칼레의 시민〉을 발견하고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중에 파리는 마치 고향과 같이 생각이 되어 이 작품만 보아도 매우 반갑다”는 감회를 적기도 하였다.

특히 나혜석은 구미여행에서 돌아와 파리의 화가생활과 관련한 글을 몇 편 발표했는데,¹⁴⁾ 이는 창작자로서 파리의 내부자적 시선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나혜석은 8개월간의 파리 체류로 파리 미술계의 변화를 알기엔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예술가의 도시’로서 파리를 자세히 소개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프랑스의 예술 교육기관인 아카데미와 화가들의 연구법을 소개하면서 화가로서 ‘예술가의 도시’ 파리에서 느낀 복합적 감정과 짧은 체류의 아쉬움 드러내거나, 댄스홀, 연극, 활동사진, 오페라 등 파리의 예술적 분위기에 대한 그리움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파리의 시가설비, 공원시설 모든 것이 미술적인 것은 물론이요 연극, 활동사진 어느 것 하나 미술품 아닌 것이 없다. 더욱이 화가에게 새 기분을 돌게 하는 것은 댄스홀이다. 몽파르나스에는 화가 마을인 만큼 값싸고 소박한 댄스홀이 많다. …… 화가들은 이와 같이 마시고 흥껏 웃고 춤추어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은 후련한 새 기분으로 화면(畫面)에 접하게 된다. 연극, 오페라, 활동사진을 가보면 어느 것 하나라도 미(美)의 채굴자(採掘者) 아닌 것이 없어 모두 참고하게 된다. 화가가 있어야만 할 파리로, 파리는 화가를 불러온다. 화가 뿐 아니라 빈자거나 부자거나 유쾌하게 놀 수 있고, 나이가 먹었거나 말거나 어린이 같이 노는 파리를 누가 아니 그리워 하리요.

(나혜석, 1932c:79)

그러나 구미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혼과 사회적 비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나혜석은 파리라는 도시는 한 사람의 여성이자, 예술가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게 해 준 장소였으나, 여행의 끝에 돌아온 현실에서는 용납되지 못한 이상을 심어준 역설적 장소임을 깨닫게 된다. 나혜석에게 파리는 중국에는 출발지로 돌아갈 것을 예정하고 떠난 꽃 같은 여행지가 아니었다. 당시 집을 떠난 여성이 길위에서 행복한 삶의 가능성을 꿈꾸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나혜석이 돌아가고 싶은 파리는 더 이상 살려고 가는 곳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을 곳, ‘죽으러 가는 곳’이었고, 그곳에 기대하는 것은 묘지의 꽃 한 송이었다.

가자. 파리로. 살려 가지 말고 죽으러 가자. 나를 죽인 곳은 파리다. 나를 정말 여성으로 만들어 준 곳도 파리다. 나는 파리에 가 죽으련다. 찾을 것도, 만날 것도, 얻을 것도 없다. 돌아올 것도 없다. 영구히 가자. 과거와 현재가 공(空)인 나는 미래로 나가자. 무엇을 할까. “나는, 나는 이것을 가지고 파리로 가련다. 살려 가지 않고 죽으려.” 가면서 나의 할 말은 이것이다. …… 4남매 아이들아. 어미를 원망치 말고 사회제도와 도덕과 법률과 인습을 원망하라. 네 어미는 과도기에 선각자로 그 운명의 줄에 희생된 자였 더니라. 후일 외교관이 되어 파리에 오거든 네 어미의 묘를 찾아 꽃 한 송이 꽃아 다오.

(나혜석, 1935a:80)

III. 나혜석의 「구미만유기」: 새로운 글쓰기·그리기 형식의 탄생

1. 유기·시찰기에서 기행문으로

여성으로는 최초였던 1년 8개월의 구미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온 나혜석은 1930년대 신문과 대중잡지에 구미여행에 대한 글쓰기를 시작한다. 나혜석은 이들 여행기에 ‘유기(遊記)’ 또는 ‘시찰기(視察記)’라는 이름을 붙였다. ‘유람하거나 견문한 사실을 기술한 산문 양식’의 일종인 유기는 중국의 북조(北朝) 시대부터 자연경관을 묘사한 유기가 유행했을 만큼 오랜 역사성을 가진 동아 시아의 문학양식 중 하나이다. 유기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해왔는데,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 유행한 ‘유산기(遊山記)’는 그 대표적 사례이다(정치영, 2003).

유기가 이처럼 오랜 역사성을 가지고 발전하여 점차 근대적 기행문의 성격을 담게 된 것과는 달리, ‘두루 돌아다니며 실지(實地)의 사정을 살펴 적은 기록’인 ‘시찰기’라는 용어는 1881년 일본의 근대 문물을 배우기 위해 고종이 파견한 박정양, 어윤중, 이현영 등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의 보고서에서 처음 확인된다. ‘여행하는 선비들’이라는 뜻에서 ‘신사유람단’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그 비용을 조선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여행은 민간의 유람과는 성격이 달랐다. 시찰단은 일본에 2개월 반 정도 머물면서 정부부처, 군과 산업 시설, 도서관과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을 조사하였고, 귀국 즉시 100여 책에 달하는 견문을 기록한 ‘문견사건(聞見事件)’과 내무성·외무성·대장성·문부성·공부성·사법성·농상공부·육군·세관에 대한 ‘시찰기’를 작성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따라서 나혜석의 여행기가 ‘유기’, 또는 ‘시찰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1910년대 이후 근대 산문의 일종으로서 확립되기 시작한 기행문에 더 가까운 것임을 알 수 있다. 1910년대 「소년」, 「청춘」, 매일신보 등에 유기 형식의 견문기가 등장한 후 ‘기행문’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192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20년대 신문사와 잡지사가 전개한 ‘국토 기행’이나 일본과 구미 해외 유학생기, 신문 기자의 답사기와 탐방기 등 기행문이 다양한 형태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이 시기 기행문은 이전에 비해 사실적 재현을 중시하고, 필자의

감정 표현이 직설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나타났다(김경남, 2013b).

이어 1930년대는 문학 장르로서 수필의 성장과 함께 국내의 기행문이 큰 인기를 얻는데, 이러한 양적 성장과 대중화에는 신문과 잡지 등 저널리즘의 역할이 컸다(김현주, 2004). 나혜석의 구미여행기가 주로 발표된 1930년대가 되면 “여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적은 글”이라는 근대적 의미의 ‘기행문’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확립되었다.

기행문이라는 것은 여행이나 원족(遠足) 중에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쓴 글을 말합니다. …… 갈 때와 가서 와 올 때의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쓰면 됩니다. 다만 먼 곳에 여행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의 풍속, 습속, 지세(地勢), 산물(產物) 같은 것도 자세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즉 지리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기사(記事)는 될 수 있는 대로 깊이 인상에 남은 것을 쓸 것입니다.

(朴璣琳, 1931; 김경남, 2013a:4 재인용).

2. 사생과 풍경화

나혜석의 이력 중에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라는 사실이지만, 문학과 비교할 때 미술사에서 그녀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다. 물론 그녀가 남긴 여행기, 소설, 시, 희곡 등과 비교하면 현재 남아있는 그림이 매우 적다는 것이 한 이유이지만, 그녀의 회화 작품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이 또 다른 이유이다. 그러나 그녀는 언제나 스스로를 화가로 생각했으며, 생애의 마지막까지도 그림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애썼다.

오늘날 지리학에서는 여행기를 단순히 인쇄물에만 한정하지 않고, 여행과 관련된 미술, 지도, 사진, 박물관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다룬다(Duncan and Gregory, 2009:774). 특히 나혜석의 기행문이 주로 여행이 끝난 후 조선에 돌아와서 기억을 통해 재구성하여 쓰인 것과는 달리, 유럽을 그린 풍경화의 대부분은 현지에서 사생을 통해 그려진 것이라는 점에서 나혜석의 풍경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풍경(風景)’은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모습’ 또는 ‘자연의 경치를 그린 그림’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전자의 의미에는 보통 ‘경치(景致)’, ‘경

색(景色), '산수(山水)'라는 말을 함께 사용했지만, 동양화에 주로 사용되는 '산수'를 제외하면 그림 자체를 칭하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에게 '풍경'이란 단어는 '풍경화'라는 새로운 서양화 양식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반영한다. 일본에서 '풍경화(landscape)'의 번역어로 '風景'이 사용된 것은 1892년 메이지미술회의에 전시된 영국인 존 벌리(John Verley)의 풍경화의 제목으로 사용되면서부터이다(靑木茂, 1996:61; 서유리, 2001:16 재인용). 즉 풍경과 풍경화 개념의 기원은 19세기말 일본에서 번역된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풍경화'라는 개념과 그 회화적 양식이 알려진 것은 고희동, 김관호, 나혜석 등 도쿄미술학교 서양화과에서 유화를 전공한 미술가들 이른바 '서양화가'가 탄생하면서부터였다(홍선표, 2012). 인물화가 많은 고희동에 비해, 김관호와 나혜석은 풍경화로 알려졌다. 세 사람이 유학한 도쿄미술학교의 학제가 인물, 정물, 풍경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있었던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서유리, 2001:15).

나혜석은 1921년 임신 9개월의 몸으로 경성일보사에서 개인전람회를 개최하는데 이는 서울에서 최초로 열린 유화 개인전이기도 했다. 전시된 작품은 주로 풍경화였으며, 작품들이 고가에 팔리고 하루 관람객이 5천명에 달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동씨(나혜석)는 인물화라든지 정물화보다 풍경에 대단한 취미가 있는 듯하여, 이번 본사 내청각에 개최될 전람회에 진열할 유화도 역시 풍경으로 벌써 칠십여 장 가량이 준비가 되었는데, 이번 전람회의 목적은 조선 사람들에게 이 미술적 필요를 알게 하기 위하여 본사 내청각을 빌려가지고 십구일부터 동이십일까지 양일간에 유화전람회를 열고 일반 인사들에게 관람케 할 예정인데, 여하간 미술적 사상이 결핍한 조선여자로 이와 같은 미술적 사업에 열심인 것은 진실로 처음이며, 또한 이번 전람회는 동씨가 졸업한 후 처음이라더라.

(매일신보, 1921년 3월 17일자)

나혜석이 일본에서 배운 풍경화는 19세기 서양의 사실적 풍경화였다. 서양의 풍경화를 받아들인 일본에서는 실제의 대상을 직접 보고 그리는 '사생(寫生)'이 서양화의 고유한 제작 방법으로 확립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유학에서 돌아온 서양화가들에게 사생은 풍경화의 핵

심적 방법으로 여겨졌으며, 야외로 사생을 나가 이젤을 펴놓고 풍경을 그리는 모습은 화가의 고유한 개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대중적 이미지로 정착되었다(서유리, 2001:35). '사생 여행', '스케치 여행'과 같이 여행을 통해 사생의 방식으로 풍경화를 그리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1930년대에는 여행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글로 기록하는 기행문과 함께, 작가 자신이 눈으로 본 풍경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른바 '기행사생화(紀行寫生畵)' 또한 유행하게 된다(박희연, 2010).

여성 최초로 일본에서 서양화를 배운 나혜석 또한 사생의 방식으로 풍경화를 그렸다. 사생을 통한 풍경화는 화가가 집 밖으로 나가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화가의 '단일 시각(a single view)'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에 대한 오래된 이분법이나, 1920년대 조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재론하지 않더라도 스케치박스를 들고 나가 야외에서 그림을 그리는 나혜석의 모습은 당대에도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다. 일례로 나혜석은 중국에서 고적(古蹟)을 사생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기도 했다.

제이로 곤란했던 것은 사생하던 처소가 공교히 나무장터가 되어서 나무 팔릴 때까지 멀거니 앉아 있던 중국 쿨리들은 무슨 큰일이나 난 것처럼 수십 명이 빙 둘러싸고 뒤에서는 들이밀고 육척이나 되는 큰 키들이 앞을 막아서면 일일이 악을 써서 '니아(당신들)'를 부른다. 그러면 깜짝 놀라 비켜서는 이도 있고 끈적끈적한 몸을 딱 버티고 섰다. 그러면 나도 성이 나서 서투른 중국말로 '점머 니부지더마 오부능 칸칸 제벤(내가 저기를 볼 수 없는 것을 왜 너는 모르느냐)' 하고 악을 짹 쓴다.

(조선일보, 1926년 5월 21일자: 서유리, 2001:38-39 재인용)

따라서 사생을 통한 풍경화라는 형식은 나혜석의 구미여행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일반적으로 화가로서의 나혜석의 작품 경향을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하는데, 구미여행 이전에는 주로 사실적인 풍경화를 그렸다면, 구미여행에 돌아온 후에는 야수파와 표현파 등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을 선보였다. 구미여행이 끝난 후 기억을 바탕으로 쓰인 여행기가 주로 조선에서의 나혜석의 상황과 감정을 반영하고 있다면, 단순하고 강렬한 색채로 그려진 나혜석의 유럽 풍경화는 유럽

의 수많은 미술관에서 확인한 유럽 미술의 경향을 반영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나혜석은 파리에서 3개월간 야수파 화가인 비시에르의 화실을 다녔을 뿐만 아니라, “고전파, 낭만파, 바르비종파, 인상파, 신인상파, 후기인상파, 입체파, 야수파, 미래파, 표현파, 추상파”에 이르는 당대 유럽 미술의 경향에 해박했다. 구미여행 직후의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여행 중에 스케치한 작업들이 약 7, 80점 가량이었다고 전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유럽 풍경화는 〈스페인 국경〉, 〈스페인 해수욕장〉, 〈파리 풍경〉 정도이다.

그러나 구미여행 이후 나혜석은 최초의 여성 서양화 가로서가 아니라 이혼과 최린에 대한 고소 사건 등 구설수의 주인공으로 전락했다. 언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화가로서의 나혜석의 작품이나 구미여행의 성과를 담은 전시회 소식보다는, 이혼 후 그녀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은 화가이자 여성으로서의 삶의 돌파구로 그림 작업에 매진했는데, 특히 1931년 제10회 조선미술전람회에 구미여행에서 작업한 〈정원〉의 특선 소식에 큰 기쁨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나혜석은 더 이상 전람회 작품이나 전시회 등의 활동을 하지 못했고, 죽기 전까지 수덕사 인근의 수덕 인근에서 가난과 병에 시달리며 그림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리에서 그린 내게는 걸작이라고 할 만한 ‘정원’을 제전에 출품하였나이다. 하룻밤은 입선이 되리라 하여 기뻐서 잠을 못 자고 하룻밤은 낙선이 되리라 하여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잤나이다. 1,224점 중 2백점 선출에 입선이 되었나이다. 너무 기쁨에 넘쳐 전신이 떨렸사외다. 신문 사진반은 밤중에 문을 두드리고, 라디오로 방송이 되고, 한 뉴스가 되어 동경일대를 뒤흔들었사외다. 이로 인하여 나는 면목이 썩고 내 일신의 생계가 생겼나이다.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다 힘을 가지고 납니다. 그 힘을 사람은 어느 시기에 가서 자각합니다. 아무라도 한 번이나 두 번은 다 자기 힘을 자각합니다. 나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 힘을 의식하였나이다. 그때에 나는 펍 행복스러웠사외다.

(나혜석, 1934d:88-89)

3. 여행기 주체로서 나혜석

구미 만유기 1년 8개월간의 나의 생활은 이러하였다. 단

발을 하고 양복을 입고 빵이나 차를 먹고 침대에서 자고 스케치박스를 들고 연구소(아카데미)를 다니고 책상에서 불란서 말 단어를 외우고 때로는 사랑의 꿈도 꾸어보고 장차 그림 대가(大家)가 될 공상도 해보았다. 흥 나면 춤도 추어보고 시간 있으면 연극장에도 갔다. 왕전화와 각국 대신의 연회석상에도 참가해보고 혁명가도 찾아보고 여자 참정권론자도 만나 보았다. 불란서 가정의 가족도 되어 보았다. 그 기분은 여성이요, 학생이요, 처녀로서였다. 실상 조선여성으로서의 누리지 못할 경제상으로나 기분상 아무 장애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태평양을 건너는 뱃속에서조차 매우 유쾌히 지냈다.

(나혜석, 1932a:43)

지금까지 글쓰기로서 나혜석의 여행기에 대한 관심은 크게 ‘식민지 조선’의 ‘여성’이라는 여행기 생산 주체로서 나혜석에 집중되었다. 제랄딘 프랫(Geraldine Pratt)이 「제국의 시선(Empire's Eye)」에서 분석하였듯이 18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비유럽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여행 프로젝트와 여행기의 출간이 이어졌으며, 여행 서적은 유럽의 독자들에게 탐험, 침략, 투자, 식민화되는 지역들을 소유하고 명명할 권리와 그것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감각을 자극했다(김남혁 역, 2015:24).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까지도 서구의 여행기는 ‘제국의 수사학(The Rhetoric of Empire)’이라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수사적 양식을 통해 비서구사회에 대한 일관적 재현을 지속했다.¹⁵⁾ 그러나 여행기는 제국의 시선과 수사학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식민지적 주체에게는 모방, 학습, 성찰, 저항과 같은 다양한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한편 서구 여행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제국의 시선 또한 단일한 것이 아니라, 여행기 서사 주체의 인종(민족), 계급, 젠더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페미니즘의 측면에서 서구 여성의 여행기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 여행가들은 계급적 위치성에 따라 여행의 방식과 시선에서 차이가 크며(박경환, 2018), 따라서 남성과 여성 주체의 여행기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당대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특성과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Clark, 1999:22-23; 박지향, 2000:159 재인용).

나혜석의 여행기 또한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1889)으로 대표되는 구한말 계몽적 여행기와는 그 성격과 양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1920년대 해외여행을 한 남성 지식인인 노정일, 허헌, 박승철, 정석태의 여

행기와도 여행서사와 주체의 시각에서 이질적이다. 그러나 여행기의 서술 주체로서 나혜석의 정체성을 식민지의 여성이라는 피지배적 성격으로만 한정 짓기에 그녀의 위치성은 매우 다중적이다.

나혜석은 3.1운동 당시 이화학당 학생 만세 사건에 관여해 5개월간 수감된 적이 있고 안동에서 여성야학을 운영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했을 만큼 식민지적 현실에 관심이 컸지만, 남편인 김우영은 일본 외무성의 관료로 만주 안동현의 부영사였다. 1년 8개월간의 구미여행 또한 당시 일본 식민지의 변방에 근무하는 관리인 김우영에게 주어진 일제의 포상휴가가 계기가 되었다. 나혜석은 구미여행 중 외교관의 부인이라는 자신의 역할에 충신했다.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담을 방청하거나, 당시 유럽 체류 중인 영친왕을 위해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연 만찬에 참석하기도 했다. 한편 조선인 박석운을 만나서는 “이국(異國)에서 동포를 만나면 조상으로부터 받은 피가 한데 엉기는 것 같은 감회”가 생긴다고 하면서도, 스위스에서 함께 영화를 보며 사건 일본인과 밀라노에서 재회하고는 “이런 곳에서는 황인종만 만나도 눈이 번쩍 뜨인다”며 반가움을 표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식민지민으로서 나혜석의 정체성은 조선의 망국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장소(헤이그, 주미 대한제국공사관)를 방문할 때 뚜렷이 드러난다. 미국에서 우연히 찾은 구 대한제국공사관의 정문 위에 태극 표시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반갑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심정을 드러내었고, “조선 사람으로서 잊지 못할 기억을 가진” 헤이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상한 고동과 깊은 애도를 표시한다.

헤이그海牙는 네덜란드의 수도이거니와 조선 사람으로 잊지 못할 기억을 가진 만국평화회의가 있던 곳이다. …… 1918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출석하였던 이준 씨가 당회석상에서 분사(憤死)한 곳이다. 이상한 고동이 생기며 그의 고혼(孤魂)이 있어 우리를 만나 눈물을 머금은 것 같은 느낌이 생겼다. 그의 산소를 물으나 알 바가 없어 찾지 못하고 다만 경성에 계신 그의 부인과 따님에게 그림엽서를 기념으로 보냈을 뿐이다.

(나혜석, 1933c:65)

그러나 동양인이자 조선인, 식민지인이자 제국관료의 부인이라는 다중적 위치성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은 여

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있었다.¹⁶⁾ 나혜석은 부유한 집안 출신에 뛰어난 학업 성적, 여성으로서의 쉽지 않은 해외 유학 등으로 인해 일찍부터 조선 사회의 주목을 받은 여성이었다. 신문 기사에서는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본과를 수석 졸업한 나혜석에 대해 “온순한 성질은 가정이 칭찬하는 바이며, 명민한 두뇌는 학교가 애중하는 바”라고 하였고(매일신보, 1914년 4월 1일자), 동경 유학 중에는 “특별한 광채를 보이는” 여자 유학생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명석한 두뇌와 부유한 집안 배경 등으로 인해 신문에 소개될 만큼 당시의 이상적인 여성 배우자감이었던 나혜석은 그러나 일본 유학 중 아버지의 강압적인 결혼 독촉을 거부하고 교사생활에 나섰을 만큼 전통적 조선 여성의 삶을 거부했다.

나혜석이 작가로서 쓴 최초의 글은 18세에 유학생 잡지인 「학지광(學之光)」의 “이상적 부인(理想的 婦人)”으로 ‘양부현부’, ‘현모양처’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 “여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하여 부덕(婦德)을 장려한 것”이라는 도발적인 내용이었다. 결혼 후인 1921년에도 당시 매일신보에 번역 연재되던 헨리크 입센(Henrik Ibsen)의 희곡 「인형의 가(家)」의 삽화를 그리고, 마지막 회에서는 “아버지의 딸인 인형으로, 남편의 아내 인형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는 위안물이 되도다”라는 파격적인 내용의 노래 가사를 직접 쓰기도 했다.

이처럼 나혜석은 ‘현모양처’의 틀에 갇혀있는 조선 여성이, 여성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세상을 꿈꿨다. 젖먹이 아이를 두고 구미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 또한 “남녀 간 어떻게 살아야 평화스럽게 살까”, “여자의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라는 문제를 알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해외여행 중 나혜석은 구미 여성의 활동을 살펴보고 그들의 생활을 경험하고 싶었던 욕망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 귀국 후 나혜석은 구미여행 중 영국 런던에서 여성참정권 운동가인 여교사에게 영어를 배운 일이나, 세 아이를 키우면서 여성참정권 단체의 회원으로 활동하는 프랑스 부인의 일화를 여러 차례 소개했다. 이처럼 나혜석은 여행을 통해 유럽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평등한 가정생활을 직접 확인하고, 여성의 지위와 바람직한 가족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된다.

구미여행 직후 인터뷰에서 나혜석은 구미여행은 자신에게 “여성은 위대한 것이요, 행복한 자인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모든 조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기도 했다.

이번에 보고서 여자의 힘이 강하고 약자가 아닌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여자란 나부터도 할 수 없는 약자로만 생각되더니 거기 가서 보니 정치, 경제, 기타 모든 방면에 여자의 세력이 짝은 많습니다. 특히 외교 상에 있어서는 남모르게 그 내면적 활동이 굉장합니다. 우리 조선 여자들도 그리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별건곤, 1929년 8월 1일자)

그러나 구미여행에서 돌아 온 조선에서 나혜석은 자신이 유럽에서 확인한 여성주의적 가치관이 조선의 현실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불협화음을 겪게 된다. 1934년 나혜석은 자신의 결혼과 최린과의 만남, 이혼에 이른 과정을 상세히 밝힌 '이혼고백서'를 발표하여 극심한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특히 이혼고백서에서 나혜석은 조선의 신여성이 서양이나 도쿄 등 다른 나라의 가정과 여성의 삶을 알게 되면, "마음과 뜻은 하늘에 있고 몸과 일은 땅에 있는 것"과 같은 부조화를 경험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의 현실과 해외에서 경험한 이상과의 괴리가 깊어질수록 심지어 신경쇠약에 걸리거나 독신주의를 주장하게 되니, 지식인 신여성이 불쌍하다는 결론은 구미여행을 통해 성찰된 여성주의적 정체성이 여행 후의 현실에서 타협하지 못하고 좌절한 스스로에 관한 슬픈 고백에 가깝다.

유식계급 여자, 즉 신여성도 불쌍하외다. 아직도 봉건시대 가족제도 밑에서 자라나고 시집가고 살림하는 그들의 내용의 복잡이란 말할 수 없이 난국이외다. 반쯤 아는 학문이 신구식(新舊式)의 조화를 잃게 할 뿐이오 음기를 돈을 뿐이외다. 그래도 그대들은 대학에서 전문(專門)에서 인생철학을 배우고 서양이나 도쿄에서 그들의 가정을 구경하지 아니 하였는가. 마음과 뜻은 하늘에 있고 몸과 일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닌가. 달콤한 사랑으로 결혼하였으나 너는 너요, 나는 나대로 놀게 되니, 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반찬 걱정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급기야 신경과민, 신경쇠약에 걸려 독신여자를 부러워하고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나혜석, 1934d:92)

IV. 맺으며

지금까지 1927년 한국 여성 최초로 1년 8개월간 이뤄진 나혜석의 구미여행과 「구미만유기」를 분석했다. 오랫동안 나혜석의 구미여행은 주로 부유한 식민지 조선 여성의 화려한 생활이나, 이와 극적으로 대비되는 여행 이후의 비극적 결말에 대한 대중적 호기심에 동원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신여성 나혜석'에 간힌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나혜석을 '여행하는 여성'이자, '여행기 생산의 주체'로서 이해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리적 재현의 공간으로서 여행기 텍스트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여행기의 생산에 관여한 당대 여행의 공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시공간적 맥락에서 나혜석의 구미여행기를 '여행하기'와 '여행에 대한 글쓰기·그리기의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나혜석의 구미여행을 여행 동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녀의 여행은 새로운 해외여행이자 대중관광의 의미를 갖는 '만유'였다. 나혜석의 여행기에는 관광객의 시선이 확인되지만, 이는 당대 남성 지식인이 위계적 시선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나혜석의 여행기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통해 유럽까지 간 최초의 여행기록으로, 시베리아 지역과 철도 여행의 새로운 경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여행의 목적지였던 파리는 여성적인 '꽃의 도시'로 재현되었는데, 파리는 당대의 유럽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화가이자 여성인 나혜석의 삶에서 결정적 장소로 그려졌다.

또한, 작가이자 화가인 나혜석의 여행기와 풍경화를 여행에 대한 글쓰기·그리기의 측면에서 검토했다. 나혜석의 여행기는 작가의 감상을 드러내는 근대적 기행문과 사생을 통한 사실적 풍경화라는 당대의 새로운 글쓰기·그리기 형식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특히 여행기 생산 주체로서 나혜석의 여행기에 젠더·민족·인종과 같은 다중적 위치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또한 여행의 경험을 통해 성찰된 여성주의적 정체성이 여행 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좌절하였는지를 확인했다.

대중관광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오랫동안 여행은 고달프고 심지어 위험한 일을 의미했다. 그곳이 낯선 해외 지역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오디세이(Odyssey)」와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에서부터,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과 「이븐바투타 여행기(Rihlatu Ibn Batūtah)」,

그리고 오늘날 사하라 사막이나 에베레스트, 남북극 여행기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독자들을 사로잡은 수많은 여행기들은 쉽지 않은 여행에 관한 기록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여행기는 당대의 지리적 세계를 확대하고, 수많은 탐험가와 여행자의 출발을 독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혜석의 구미여행기는 당대와 현재의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살펴본 나혜석의 여행기는 한국 여성 최초로 세계를 자유롭게 누빈 성공담이 아니라, 끝내는 정주지로 되돌아와야 하는 여행의 필연적 결말이 야기한 좌절의 이야기에 가깝다. 따라서 나혜석의 구미여행기는 보통의 여행기가 그러하듯 낯선 세계에 대한 '안내서'가 아니라, 여행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좌절이 요약된 일종의 '징비록'이 되었다.

註

- 1) 일례로 2011년까지 나혜석 문학에 대한 주제로 단행본과 석박사 학위논문 이외에 약 100여 편의 소논문이 발표되었다(송명희, 2011:81).
- 2) 나혜석의 구미여행기는 1930년대 잡지 「삼천리(三千里)」를 중심으로 동아일보 등 신문 잡지에 연재되었는데, 본문에서는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원문을 중심으로, 나혜석의 여행기만을 묶어 현대어로 윤문하여 단행본으로 출판된 「조선 여성 첫 세계 일주기」(2018)와 「꽃의 파리행: 조선여자, 나혜석의 구미 유람기」(2019)를 참조하였다.
- 3)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의 근현대 신문잡지 자료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원문검색이 가능한 디지털화자료를 이용하였다.
- 4) 「서경(書經)」의 「益稷」에 “惟慢遊是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때 만유는 ‘게으르고 노는 짓’을 의미한다.
- 5) 1900년대부터 1910년대 초까지 관광단 모집, 관광단의 결성, 출발, 도착 등의 기사가 많이 발견되는데, 정부의 고위 관리와 부인들로 구성된 내지관광단은 주로 일본의 각 도시를 시찰하고 공진회, 박람회 등을 견학하였다(곽승미, 2006b:21).
- 6) 초대 주미공사 박정양의 차남 박승철은 1921년 독일 베를린으로 유학을 떠나, 1924년 8월 영국 런던에서 역사학 연구를 수행한 후 1925년 6월 6일 경성역으로 귀국하였다. 박승철은 유럽체류 기간인 1922년 3월부터 1925년 2월까지 유럽여행기를 「개벽(開闢)」에 연재했다.
- 7) 도쿄 의학전문대학을 졸업한 정석태는 1923년 독일로 유학하여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세균학을 전공한 의학박사로 독일 유학 및 유럽 생활에 대한 여행기를 「별건곤(別乾坤)」과 「삼천리」 등에 연재했다.
- 8) 허헌은 보성전문학교와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부 졸업 후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1926년 5월 20일부터 1927년 5월 10까지 딸 허정숙과 함께 구미여행을 한 후 「별건곤」과 「삼천리」 등에 구미여행기를 발표했다.
- 9) 1896년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한 민영환, 윤치호, 김득련 등의 사절단은 러시아측의 권유로 아직 미완공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했는데, 페테르부르크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까지는 철도로, 이후의 시베리아 구간은 마차로 횡단한 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물포항까지 배로 이동했다(김진영, 2016:280). 한편 조선에서 출발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경우 나혜석보다 앞서 1925년 조선일보 특파기자로 김준연이 경성발 시베리아 열차를 이용해 모스크바까지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김준연은 45일간 모스크바 체류를 마친 후 6월 11일 귀국하였다(조선일보, 1925년 2월 2일자).
- 10) 압록강철교는 경의선과 안동-평탄간 ‘안평선’이 연결되는 국제철교로 일본은 경의선-압록강철교-안평선을 대륙 진출의 지렛대로 삼으려했다. 이에 경의선을 협계가 아닌 표준궤를 설치한 일본은 러일전쟁 후 초기 협궤로 건설된 안평선을 표준궤로 변경하여 경의선과 연결하였다.
- 11) 나혜석과 시베리아 열차에 함께 탄 이들은 다음과 같다. “만저우리에서부터 동행인은 惱田씨(남미 브라질 행) 중의원 직원 松本씨(제네바 군축회의 출석 차), 공학사 後藤씨(독일시찰 차次), 加藤씨 일행 9인(후해에 빠진 군함중에 있는 금괴를 건지러 가는 길), 安藤의학박사부인, 堀江고등상업학교 교원부인과 중국인 劉씨(베를린대학 행), 李씨 夫妻(런던 옥스포드대학 행)”(나혜석, 1933a:44).
- 12) 파리가 ‘빛의 도시(La Ville-Lumière)’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한 시기는 보통 18세기 후반부터

- 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당시 파리가 유럽의 사상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계몽(enlightenment)’의 중심지라는 맥락에서 보편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 13) Harvey(2005)는 철도와 대로(boulevards)가 19세기 파리에서 상품과 화폐와 인간들의 순환을 촉진하는 상황을 기록하면서,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파리로 유입되고, 해변이나 시골에서의 주말 소풍, 부르주아 여성들이 쇼윈도를 구경하며 산책하는 것이 유행하였음을 지적하였다(김병화 역, 2005: 308-311).
- 14) 나혜석, 1932b; 나혜석, 1932c.
- 15) Spurr(1993)는 *The Rhetoric of Empire*에서 서구의 여행기에서 반복되고 변주되는 12개의 수사학적 양상(rhetoric modes)을 검토했는데, 감시(surveillance), 전유(appropriation), 격하(debasement), 분류(classification), 심미화(aestheticization), 비실체화(insubstantialization), 이상화(idealization), 자연화(naturalization), 에로티화(eroticization)이다(박경환, 2018:82-88 재인용).
- 16) 1920년 나혜석은 상처 후 아이가 있던 김우영과 결혼하면서 일생을 두고 사랑해 줄 것,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시어머니와 전처의 딸과는 함께 살지 않도록 해줄 것, 사망한 애인(최승구)의 묘에 비석을 세워줄 것을 결혼조건으로 제시했다(나혜석, 1934c). 당대에 이러한 나혜석의 행보는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 과 기행문 연구” *한민족어문학*, 63, 251-275.
- 김남혁 역, 2015, 「제국의 시선: 여행기와 문화횡단」, 서울: 현실문화연구(Pratt, M.L., 1992, *Imperial Eyes: Travel Writing and Transculturation*, New York: Routledge).
- 김미지, 2019, 「우리안의 유럽, 기원과 시작: 근대의 문턱에서 조우한 유럽」, 파주: 생각의 힘.
- 김병화 역, 2005,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 서울: 생각의 나무(Harvey, D., 2005, *Paris, Capital of Modernity*, New York: Routledge).
- 김진영, 2016, “한국 근대기 러시아 여행과 시베리아 답론”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55, 277-304.
- 김현주, 2004, 「한국 근대 산문의 계보화」, 서울: 소명출판.
- 나카네 다카유키(中根隆行), 2010, “재조선이라는 시좌와 여행철학-도한 일본인의 조선상과 아베 요시시게의 한일 비교문화론” 박광현·이철호 편, 「이동하는 텍스트 횡단하는 제국」,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49-74.
- 나혜석, 1914, “理想的 婦人,” *학지광*, 3, 13.
- 나혜석, 1932a, “아아 自由의 巴里가 그리워, 歐米 漫遊하고 온 후의 나,” *삼천리*, 4(1), 43-46.
- 나혜석, 1932b, “巴里의 모델과 畫家生活,” *삼천리*, 4(3), 48-51.
- 나혜석, 1932c, “巴里畫家生活, 巴里의 모델과 畫家生活” *삼천리*, 4(4), 78-79.
- 나혜석, 1932d, “쓰비엣露西亞行, 歐米遊記의 其一,” *삼천리*, 4(12), 60-63.
- 나혜석, 1933a, “CCCP-歐米遊記 其二,” *삼천리*, 5(1), 44-47.
- 나혜석, 1933b, “伯林과 巴里” *삼천리*, 5(3), 38-42.
- 나혜석, 1933c, “꽃의 巴里行, 歐米巡遊記 續” *삼천리*, 5(4), 80-82.
- 나혜석, 1933d, “伯林에서 倫敦까지, 歐米遊記의 續” *삼천리*, 5(9), 82-86.
- 나혜석, 1933e, “西洋藝術과 裸體美, 歐美一週記” *삼천리*, 5(10), 64-67.
- 나혜석, 1934a, “情熱의 西班牙行(世界一周記 續),” *삼천리*, 6(5), 128-131.
- 나혜석, 1934b, “巴里에서 紐育으로(世界1週期 (續),” *삼천리*, 6(7), 134-139.
- 나혜석, 1934c, “離婚告白狀, 靑邱氏에게” *삼천리*, 6(8), 84-96.
- 나혜석, 1934d, “太平洋 건너서(-歐米遊記續),” *삼천리*, 6(9), 162-169.

참고문헌

- 강현수·이희상 역, 2016, 「모빌리티」, 서울: 아카넷(Urry, J., 2007, *Mobilities*, Cambridge: Polity).
- 곽승미, 2006a, “세계의 위계화와 식민지주민의 자기응사: 1920년대 박승철의 해외기행문” *한국문화연구*, 11, 245-275.
- 곽승미, 2006b, “식민지 시대 여행 문화의 향유 실태와 서사적 수용 양상” 강영심·곽승미·김봉희·나애자·손정숙·이방원 「일제 시기 근대적 일상과 식민지 문화」,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7-44.
- 김경남, 2013a, “근대적 기행 담론 형성과 기행문 연구” *한국민족문화*, 47, 93-117.
- 김경남, 2013b, “1920년대 전반기 동아일보 소재 기행 담론

- 나혜석, 1934e, “伊太利美術館” 삼천리, 6(11), 168-173.
- 나혜석, 1935a, “新生活에 들면서” 삼천리, 7(1), 70-81.
- 나혜석, 1935b, “伊太利美術紀行” 삼천리, 7(2), 182-187.
- 나혜석, 2018a, 「나는 페미니스트인가: 100년후 독자에게 전지는 물음」, 고양: 가가날.
- 나혜석, 2018b, 「조선 여성 첫 세계 일주기」, 고양: 가가날.
- 나혜석, 구산아 편 2019, 「꽃의 파리행: 조선여자, 나혜석의 구미 유람기」, 서울: 알비.
- 박경환, 2018, “포스트식민 여행기 읽기: 권력, 욕망 그리고 재현의 공간”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여행기의 인문학: 여행이란 인간에게 운명과도 같다」, 서울: 푸른길, 71-123.
- 박선영, 2017, “근대 여성과 여행, 문화소비와 구별짓기 -「신여성」(1923-1934)과 「여성」(1936-1940) 담론을 중심으로-” 인문사학21, 8(5), 373-391.
- 박성신, 2018, “「한국안내(韓國案内)」를 통해서 본 개항기 도시계획과 생활상: 1902년 군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7(2), 181-198.
- 박승철, 1925, “倫敦求景” 개벽, 56, 71.
- 박지향, 2000, “여행기에 나타난 식민주의 담론의 남성성과 여성성” 영국연구, 4, 145-160.
- 박진희 역, 1999, 「철도 여행의 역사: 철도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서울: 궁리(Schivelbusch, W., 1977, *Ceschichte der Eisenbahnreise-Zur Industrialisierung von Raum und Zeit im 19. Jahrhundert*, München: Calr Hanser Verlag).
- 박희연, 2010, “근대 한국의 기행사문화연구-1930년대 동아일보 연재 삽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유리, 2001, “1910-20년대 한국의 풍경화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유경, 2008, “나혜석의 구미 만유기에 나타난 여성 산책자의 시선과 지리적 상상력” 민족문화사연구, 36, 170-203.
- 송명희, 2011, “나혜석 문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현대문화이론연구, 46, 71-95.
- 신지영, 2009, “여행과 공간의 성의 정치학을 통해서 본 나혜석의 풍경화” 여성과 역사, 11, 75-104.
- 오동훈·신정엽, 2017, “Wylie의 접근 방법을 통한 문학 경관 독해: 「달콤한 나의 도시」를 사례로” 한국지리학회지, 6(1), 63-76.
- 우미영, 2018, 「근대 조선의 여행자들: 그들의 눈에 비친 조성과 세계」, 고양: 역사비평사.
- 이동민, 2018,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의 「한나라 기행(韓の國紀行)」에 재현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학회지, 7(3), 363-386.
- 이순탁, 1997, 「최근 세계 일주기 -일제하 한 경제학자의 제국주의 현장 답사」, 서울: 학민사(李順澤, 1934, 「(最近)世界一周記」, 京城: 漢城圖書).
- 이현정, 2008, “나혜석 문학에 수용된 여성 담론 연구” 한국어와 문화, 4, 59-91.
- 임성모 역, 2004, 「만철: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서울: 산치림(小林英夫, 1996, 「滿鐵 -「知の集團」の誕生と死」, 東京: 吉川弘文館).
- 정치영, 2003, “「金剛山遊山記」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 관행” 문화역사지리, 15(3), 17-34.
- 정현주 역,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적 지식의 한계」, 파주: 한길사(Rose, G., 1993,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Cambridge: Polity).
- 정희선, 2018, “이사벨라 버드 비숍의 열대 여행기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시선과 여성 여행자로서의 정체성”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편 「여행기의 인문학: 여행이란 인간에게 운명과도 같다」, 서울: 푸른길, 322-349.
- 조지숙, 2015, “나혜석과 조르주 상드의 여성주의 세계관 비교연구 -예술가의 소명의식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41, 321-349.
- 차혜영, 2004, “지역간 문명의 위계와 시각적 대상의 창안 -1920년대 해의 기행문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24, 7-46.
- 천정환, 2014, 「근대의 책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서울: 푸른역사.
- 최남선, 1909, “世界書說” 소년, 5월호, 9-40.
- 최남선, 1914, “세계일주기” 청춘, 창간호, 부록 37-80.
- 최정아, 2015, “동아시아 문학과 여성 -나혜석, 요사노 아키코, 장아이링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2(1), 95-130.
- 한지은, 2019, “익숙한 관광과 낯선 여행의 길잡이 -서구의 여행안내서와 여행(관광)의 변화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1(2), 42-59.
- 함종선, 2006, “울스트크래프트와 나혜석, 근대적 여성 주체의 문제” 안과박, 21, 61-89.
- 홍선표, 2012, 「한국 근대미술사: 갑오개혁에서 해방 시기까지」, 서울: 사공아트.

朴璣赫 1931, 「創作鑑賞朝韓語作文學習書」, 京城 以文堂
 青木茂 1996, 「自然をうつす: 東の山水画・西の風景画・水彩画」, 東京 岩波書店.
 崔在學 1909, 「(實地應用)作文法 上, 下」, 漢城 微文館.
 Clark, S. ed., 1999, *Travel Writing and Empire: Postcolonial Theory in Transit*, London: Zed Books.
 Duncan, J.S. and Gregory, D., 2009, Travel writing, in Gregory, D., Johnston, R., Pratt, G., Watts, M., and Whatmore, S., eds.,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Oxford: Wiley-Blackwell, 774-775.
 Duncan, J.S. and Gregory, D., eds., 1999, *Writes of Passage: Reading Travel Writing*, New York: Routledge.
 Larsen, J. and Urry, J., 2011, Gazing and performing,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9(6), 1110-1125.
 Morin, K., 2006, Travel writing, in Warf, B., ed., *Encyclopedia of Human Geography*, Thousand Oaks: SAGE, 503-504.
 Spurr, D., 1993, *The Rhetoric of Empire: Colonial Discourse in Journalism, Travel Writing, and Imperial Administra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동아일보, 1920년 6월 30일자, “채무 尹澤榮 尹弘燮 父子의 北京行, 온집안이 이사를 간다고함은 헛말이라고 윤희섭씨의 변명”
 동아일보, 1926년 7월 7일자, “東京서 伯林까지 列車로 十六日, 구라파와 아세아 연락기차 一等車賃은 六百圓”
 동아일보, 1930년 3월 28일자, “구미시찰기 -프랑스 가정은 얼마나 다른가 (가)”
 동아일보, 1930년 3월 29일자, “구미시찰기 -프랑스 가정은 얼마나 다른가 (나)”
 동아일보, 1930년 3월 30일자, “구미시찰기 -프랑스 가정은 얼마나 다른가 (다)”
 동아일보, 1930년 3월 31일자, “구미시찰기 -프랑스 가정은 얼마나 다른가 (라)”
 동아일보, 1930년 4월 1일자, “구미시찰기 -프랑스 가정은 얼마나 다른가 (마)”
 동아일보, 1930년 4월 2일자, “구미시찰기 -프랑스 가정은 얼마나 다른가 (바)”
 매일신보, 1914년 4월 1일자, “材子재난”
 매일신보, 1919년 5월 6일자, “漫遊外人漸増, 소요가 진정되어 유람객이 많이 와”

매일신보, 1921년 3월 17일자, “부인과 가장 洋書展覽에 對하여(女流洋書家 羅蕙錫女史談)”
 매일신보, 1921년 3월 20일자, “洋書展覽會 初日大盛況, 삼백여원짜리 기타가 날개가 돋친 듯이”
 매일신보, 1921년 3월 21일자, “羅女史展覽會 第二日の 盛況, 관객이 무려 사오천에 달하였었다”
 매일신보, 1921년 4월 3일자, “나혜석, 노라”
 매일신보, 1927년 1월 16일자, “꽃서울파리까지 14일간에 도착”
 매일신보, 1931년 2월 13일자, “세계의 ‘에로’ 풍경”
 매일일보, 1912년 6월 1일자, “鮮直通列車”
 별건곤, 1929년 8월 1일자, “구미 漫遊하고 온 여류화가 나혜석 씨와 문답기”(제22호, 118-122)
 시대일보, 1925년 1월 23일자, “歐亞가 연락, 일수, 금액은 海路반액”
 연합뉴스, 1999년 10월 1일자, “2000년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조선일보, 1925년 2월 2일자, “본사 노국(露國) 특파기자 김준연씨 금조(今朝) 출발”
 조선일보, 1926년 5월 21일자, “미전출품제작중에”
 조선일보, 1927년 6월 21일자, “나혜석 여사 세계 漫遊”
 황성신문, 1899년 3월 9일자, “英皇의 法國漫遊”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http://www.koreanhistory.or.kr>

교신 : 한지은, 28173, 충청북도 청주시 태성탑언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jinnyhan@knue.ac.kr)

Correspondence : Ji-Eun Han, 28173, 250 Taeseongtabyeon-ro,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Second Colle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Email: jinnyhan@knue.ac.kr)

투 고 일: 2019년 11월 26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12일
 투고확정일: 2019년 12월 15일

